



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토너먼트인 윌블던을 기념한 윌블던 애프터는 티와 6월의 '아버지의 날'을 기념한 아버지의 날 애프터는 티, 스파와 함께 티를 즐기는 '스파티세리 (Spatisserie)' 등 특별 메뉴가 자주 업데이트되어 고르는 재미가 있다.

주소 The Dorchester, Park Lane, W1K 1QA
튜브 Hyde Park Corner, Green Park
전화 020 7629 888
시간 매일 13:15, 14:30, 15:15, 16:45, 17:15
예산 전통 애프터는 티 £38.50(1인), 샴페인 애프터는 티 £52.50(1인), 스파티세리 애프터는 티 £39(1인)
홈페이지 <http://www.thedorchester.com/afternoon-tea>

1인당 20 파운드 이하로 즐기는 런던의 티타임

1. 티나무 차야 티하우스
 Teanamu Chaya Teahouse

노팅 힐의 티나무 차야 티하우스는 전통적인 애프터는 티 메뉴도 준비해 두었지만 덤섬이나 연꽃잎 섶쌈, 녹차 가루를 뿌린 마시멜로, 맛차 쇼트브레드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핑거푸드로 주목받고 있다. 이렇게 오리엔탈한 느낌의 메뉴로 잘 알려진 티나무 차야 티 하우스는 <텔레그래프(Telegraph)>지에서 런던의 최고 애프터는 티 플레이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. 각 메뉴는 £2 정도라 여러 가지를 고르고 차를 시켜도 가격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. 이곳에서 맛본 차를 집에서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판매도 하니 색다른 기념품

Copyright©Teanamu Chaya Teahouse



을 구매하기에도 더 없이 좋은 곳이다. 포토벨로 마켓을 구경한 후 떠들썩한 마켓 거리보다는 이곳에서 따끈한 차를 마시며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?

주소 14A St Luke's Rd, London, W11 1DP
튜브 Ladbroke Grove, Westbourne Park
전화 020 7243 0374
시간 토, 일 12:00~18:00
예산 £10(1인) 정도
홈페이지 <http://www.teanamu.com>

Copyright©Blakes



2. 블레이크스 호텔 Blakes Hotel

블레이크스 호텔의 애프터는 티는 차이니스 룸(Chinese Room) 혹은 일본식 정원에서 다도를 즐기는 느낌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, 대나무를 비롯한 이국적인 데코가 인상적이다. 훈제 연어, 비프와 칠리, 치킨 생강 등 오이 샌드위치를 포함하여 다섯 종류의 핑거 샌드위치가 준비되며 신선한 딸기를 스콘과 함께 마련하여 여러 종류의 맛을 느낄 수 있다. 이렇게 푸짐한 메뉴에도 1인당 £19라는 착한 가격을 책정하여 인기가 많다. 샴페인을 추가한 샴페인 애프터는 티의 가격도 다른 호텔들의 샴페인 애프터는 티 가격의 반 정도인 £26이다. 클로티드 크림이 아닌 휘핑크림이 나온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다.

주소 Chinese Room/Japanese Garden, Blakes Hotel, 33 Roland Gardens, SW7 3PF
튜브 South Kensington
전화 020 7370 6701
홈페이지 <http://www.blakeshotels.com>
시간 매일 12:30~17:30
예산 애프터는 티 £19(1인), 샴페인 애프터는 티 £26(1인)

Tip 스콘에 듬뿍 바르는 클로티드 크림의 정체는?

클로티드 크림은 버터도 아닌 것이 생크림과는 또 다르다. 저온 살균 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를 가열하며 생기는 노란 클롯(clot, 덩어리)이라고 하여 클로티드 크림이라 칭하는 이것은 그냥 먹으면 별맛이 나지 않지만 섬세한 고소함이 스콘을 만나면 환상을 공황을 자랑하여 애프터는 티에 빠질 수 없다.

유럽 연합에서는 '콘월 클로티드 크림'을 콘월 전통 조리법으로 생산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, 지방 함량이 최소 55%를 넘고 덩어리가 굳거나 저온 살균이 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. 클로티드 크림의 본 고장은 데본과 콘월로 나누는데, 이 두 지역은 클로티드 크림이라면 날을 세우고 서로 덤빌 정도로 라이벌 의식이 대단하다고 한다. 애프터는 티를 마실 때 스콘에 잼을 먼저 바르든지, 클로티드 크림을 먼저 올리든지 하는 문제로도 첨예하게 대립하여, <가디언(The Guardian)>지는 독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하여 57%가 잼이 먼저, 클로티드 크림을 맨 위에 올려 먹는 것이 정석이라는 답을 찾기도 했더니, 그들의 라이벌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.

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이 클로티드 크림은 다른 빵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딱딱한 스콘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절친한 짝궁이니, 애프터는 티에서 클로티드 크림을 발견한다면 이제 이것의 정체를 궁금해만 하지 말고 크림을 듬뿍 올려 그 부드러운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도록 하자.